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Invade Privacy on Social Network Service

안 수 미 (Soomi Ahn) 화이트정보통신(주)
장 재 영 (Jaeyoung Jang)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 지 동 (Jidong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 범 수 (Beonsoo Ki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신저자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SNS 등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Phishing, Spam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피해자 위주의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을 활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높은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총 268개의 설문을 분석했으며, 자료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을 활용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지된 즐거움, 처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호기심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고 Motivation Theory의 변수들 또한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프라이버시 연구의 범위를 이용자 및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로 확장시켰고, 동기 이론의 변수들을 활용한 계획된 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인지된 즐거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용자 약관 및 개인정보법 개정의 실무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키워드 :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계획된 행동 이론, 동기 이론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부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2분기에 판매된 휴대폰 4억 3,500만 대 중 2억 2,500만 대가 스마트폰으로 전체 휴대폰 판매량의 50%를 초과했다(Gartner 2013).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3,200만 명으로 가입자 수 기준으로 세계 7위이며,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에 5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KPCB, 2012).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이다.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가 2012년 5억 명을 돌파했으며, Facebook의 경우 2004년 서비스 시작 이래로 8년 만인 2012년 현재 10억 명을 돌파했다. 국내에서는 20대 10명 중 9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SNS의 이용은 인맥을 형성 및 강화하여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기능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맹목적 신뢰, 관계 불균형과 같은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특히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상 털기,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 사이버 폭력 등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따라서 최근 경영정보 분야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Malhotra et al., 2004; Son and Kim, 2008, Johnston and Warkentin, 2010) 또는 프라이버시 Calculus/Paradox(Gordon et al., 2010; Dinev and Hart, 2006)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원인 등 가해 행위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연구가 거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공 중인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거부 또는 서비스 탈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용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1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0만 건 이상의 카드 해지 등 서비스 이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한국신용평가, 2014).

이에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윤리적 의사결정행위로 보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형을 활용하여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이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한 내적 동기 및 외적 동기는 물론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위한 태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 장에서는 논문의 배경, 문제점, 선행 연구 경향, 연구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제 III장에서는 연구 모형,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제 IV장에서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표본의 특성을 기술했다. 제 V장에서는 연구 모형의 신뢰성, 타당성, 모델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증 결과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제 VI장에서는 연구의 토의,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했다.

II. 이론적 배경

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프라이버시 침해

SNS는 196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SNS의 전통적인 형태는 친구 또는 면대면 관계와 같은 유형이었으나 최근의 SNS는 가상 커뮤니티나 컴퓨터를 매개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Kwon and Wen, 2010).

SNS의 사용 증가는 개인정보의 안전하지 않은 공개,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 인터넷 중독, 위험한 행동, 위험한 커뮤니티와의 접촉 등과 같은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Motahari *et al.*(2007)는 SNS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강제적 검열, 불충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설계 시 불충분한 정보보호 기능의 고려, 독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 지속적인 사용자 관찰에 따른 사회적 추론,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유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SNS의 사용 증가는 SNS 상에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NS 중 하나인 포스퀘어(Foursquare)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 포스퀘어에서 개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정보가 다른 SNS인 Facebook, Twitter와 연동되어 있어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사회적 추론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오태원, 유지연, 2010). SNS 상에 공개된 방대한 정보는 이 외에도 해킹, 정부 검열, 기업 검열, 데이터 마이닝 등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Gross and Acquisti, 2005), 사이버 스토킹, 괴롭힘, 명예훼손 등의 사용자 간의 위험한 활동에 따른 위협 또한 존재한다고 하였다(Debatin, 2011).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로는 SNS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Lawler and Molluzzo, 2010), 미국, 중국, 인도의 SNS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태도 및 실제 행위에 관한 연구(Wang *et al.*, 2011), SNS 이용 중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SNS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의 노출과 보호 기능 설정에 관한 연구(Gross and Acquisti, 200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SNS에서 이용자에 관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프라이버시 Calculus/Paradox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해자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2.2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의 불완전한 의지 통제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Ajzen(1991)이 제안한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과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의 중심적인 요인은 개인이 주어진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도이다. 의도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으로 가정한다.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기꺼이 시도할 것인가, 얼마나 행위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등을 의미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위 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위 의도는 행동(Behavior)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Ajzen and Fishbein, 1980; Lin *et al.*, 1999). 태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적 신념으로부터 발생하며, 태도는 행위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결과를 갖는 행동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Ajzen, 1991). 윤리적 컴퓨팅

연구에서 태도는 개인의 윤리적 컴퓨팅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onard *et al.*, 2004 : Lin *et al.*, 1999).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위 여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인지된 행동통제는 실제 통제보다 심리학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의도와 실제 행위에 영향을 준다. 인지된 행동통제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지된 행동통제 변수가 추가된 것이 기존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한 차이점이다(Ajzen, 1991).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위를 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이 행동 수

행을 위한 자신의 능력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인지된 행동통제가 더 높아진다(Ajzen, 1989). 계획된 행동이론 및 합리적 행동이론 모두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 많은 공헌이 있었으며, 몇몇의 연구자들은 계획된 행동이론이 경영정보 분야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간주하고 있다(Leonard *et al.*, 2004).

경영정보 분야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주요 연구모델의 선행요인 및 결과 요인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윤리적 의사결정 관련 선행 연구

연구자	선행요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과요인
Lin <i>et al.</i> (1999)	프라이버시 문제 인식, 조직적 윤리 풍토	불법 복제에 대한 태도, 불법 복제에 대한 주관적 규범, 불법 복제에 대한 인지된 통제(컴퓨터물 개성화, 컴퓨터 자기효능감)	불법복제의도
Peace <i>et al.</i> (2003)	처벌, 심각성, 소프트웨어 비용, 처벌 확실성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불법복제의도
김광용(2004)	S/W 불법복제에 관한 인식, 조직의 윤리문화	S/W 불법복제에 관한 태도, S/W 불법복제에 관한 주관적 규범, 행동의 용이성(자기확신)	S/W 불법 복제의 의도
Leonard, Cronan and Kreie(2004)	사회 환경, 신념 체계, 개인적 가치, 개인 환경, 전문적 환경, 비즈니스 환경, 결과	도덕적 판단, 개인 규범적 신념, 자아 강도, 개인적 특성, 인지된 중요성, 조직적 윤리 풍토, 시나리오	윤리적/비윤리적 행동 의도
이정기, 우형진 (2010)	-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위통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인식, 동료집단규범, 도덕적 규범, 정부규제, 과거경험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
송갑호, 심민우, 김광용(2011)	자기확신, 수행위험, 경쟁강도, 직무몰입, 처벌위험, 조직윤리문화	개인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용이성	비윤리적 컨설팅 수행의도
박주연(2012)	저작권침해처벌	태도, 조절변수(저작권교육)	침해의도
Heirman and Walrave(2012)	-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사이버불링 의도, 자기 보고 사이버불링

2.3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Deci(1975)는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요인을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행위자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작용하는 동기인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Deci(1971)는 활동 그 자체의 고유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의 동기는 외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내적 동기는 다소 결과와는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내재된 만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 동기는 개인적 흥미의 추구, 능력의 발휘,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도 전할 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시도하고 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따라서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외부의 자극, 압력, 보상보다는 행동에 따라 수반되는 즐거움 또는 도전 등을 위해 행동한다(Ryan and Deci, 2000). Lindenberg(2001)에 의하면 내적 동기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내적 동기(enjoyment based intrinsic motivation)와 의무나 공동 사회 기반의 내적 동기(obligation/community based 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고 한다.

외적 동기는 결과를 얻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을 때 따라오는 구성물을 말한다. 따라서 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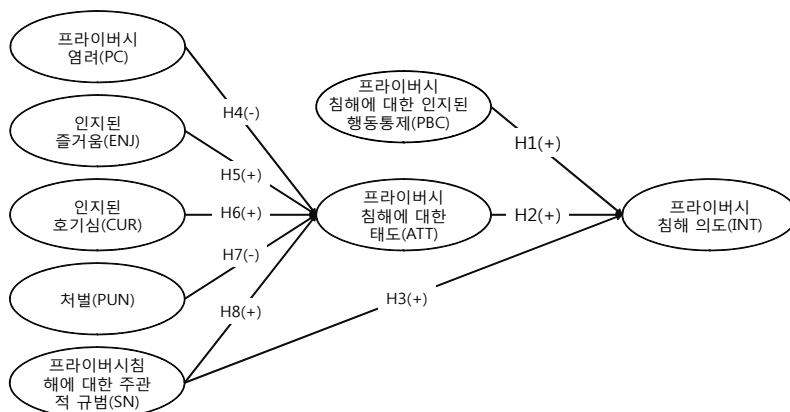
동기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 등을 말하는 내적 동기와 대조를 이룬다. 외적 동기는 별과 상을 적절히 이용하면 학습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원하는 동기이다. 외적 동기의 요인으로는 금전적 보상, 선물,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 등이 있다(Deci, 1975). 외적 동기에 의한 행위는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관점이 있지만,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외적 동기가 자율성의 정도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Ryan and Deci, 2000). Lindenberg(2001)에 의하면 외적 동기로는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이 있다고 한다.

그 동안 경영정보 분야에서는 동기 이론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Open Source Software 개발에 있어서 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Hsu and Lin, 2012) 외에도 해커들의 해킹 의도(Beveren, 2001) 등 비윤리적인 부분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의 설정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그림 1〉 연구 모형

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SNS 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기 요인으로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호기심 요인을 도출하였고, 외적 동기요인으로는 처벌과 주관적 규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3.2 연구 가설의 도출

3.2.1 계획된 행동이론 변수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위에 대한 의도를 구성하는 독립변수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Ajzen(1991)에 따르면 태도는 행위를 평가할 때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주관적 규범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위를 수행할 때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수행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많은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적합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Leonard *et al.*, 2004).

지금까지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SW 불법 복제(Lin *et al.*, 1999; Peace *et al.*, 2003), 사이버 불링(Heirman and Walrave, 2012), 비윤리적 컨설팅 수행 의도(송갑호 등, 2011)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윤리적 의사결정의 행위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
- H2: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
- H3: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

3.2.2 프라이버시 염려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프라이버시란 고전적으로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를 프라이버시 염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라이버시 염려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염려 정도’를 의미한다(Dinev and Hart, 2004).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Calculus(Dinev and Hart,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궁극적으로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Johnson, 1985).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를 줄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행위 의도 간의 연구로는 Gupta and Heng Xu (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4: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부(-)¹의 영향을 미친다.

3.2.3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Deci, 1975). 내적 동기는 자기만족과 관계와 관련된 동기이고 외적 동기는 보상과 관련된 동기

이다.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의무나 공동 사회 기반의 내적 동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내적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내적으로 동기화되면 외부적인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행위가 유발되기 보다는 자체적인 즐거움이나 호기심 등에 의해 행위가 유발된다고 한다 (Ryan and Deci, 2000). 여기서 즐거움(enjoyment)이란 도출되는 결론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특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적이고 지적인 몰입 상태(flow) 혹은 개개인의 경향적인 특성(Davis *et al.*, 1992)을 의미한다. Clinders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즐거움은 태도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Turel *et al.*(2010)에 의하면 즐거움은 가치와 행위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즐거움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호기심(Perceived Curiosity)이란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는 행동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각된 호기심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내적 욕구에서 나온다. 지각된 호기심은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자극에 의해 흥분이 유발되며, 유발된 불확실성이나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탐험적 행동의 동기가 된다(Litman *et al.*, 2005). 호기심에는 대인관계 호기심(Interpersonal curiosity), 인지적 호기심(Epistemic curiosity), 감각적 호기심(Sensory curiosity), 지각적 호기심(Perceptual curiosity)의 4가지 종류가 있다(Koo and Ju, 2010). 이중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동기는 대인관계 호기심과 인지적 호기심이 있다. 대인관계 호기심은

사람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람의 공적 또는 사적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등의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호기심은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기 위한 욕구를 말한다(Litman, 2008). Koo and Ju(2010)에 의하면 대인관계 호기심과 인지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이나 인간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사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SNS에서 새로운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이러한 호기심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행동은 대인관계 호기심과 인지적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최숙기(2010)에 의하면, 호기심은 중학생의 읽기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Chang *et al.*(2013)에 의하면 호기심은 PDAs를 사용한 고등학생의 모바일 영어 학습을 위한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6: 타인의 정보에 대한 인지된 호기심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와 달리 어떤 동기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외적 동기는 내적 요인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 처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Ryan and Deci, 2000). Lerner and Tirole(2012)에 의하면 Free/Open Source Software Project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행동을 하게 되며, Project에 참여함으로써 인한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project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유인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SNS는 개인 간의 인

맥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보상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하게 된다. 처벌이 증가하면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 반면 처벌 가능성이 낮으면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처벌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안중호 등(2010)의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Straub(1990)의 IS에서 컴퓨터 오남용의 효과적인 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7: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처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Behavior)은 행위 의도가 선행되고, 행위 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동의 영향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Randall and gibson(1991)은 연구자들이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다른 연결 고리에 대한 연구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 계획된 행동이론 및 합리적 행동이론을 사용한 Chang(1998)과 Heirman and Walrave(2012)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Chang(1998)은 그 원인으로 부모, 선생님, 동료 등으로부터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Randall and gibson(1991)의 비판을 수용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8: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IV.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SNS는 이용자가 검색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프로필을 보거나, 게시한 글을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SNS는 다른 매체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 처벌,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호기심, 프라이버시 염려의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기존 문헌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배경에 맞도록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SNS 상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상황으로 구체화하여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일부 수정해 사용하였으며, 설문항목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했다.

4.2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설문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인터넷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였고, 국내의 싸이월드,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트판, 아고라는 물론 국외 11개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73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268개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AMOS 20.0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표 2〉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측정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도구	참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Privacy Invasions)	SNS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Yoon(2011), Titah and Berki(2009)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해롭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 of Privacy Invasion)	SNS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 때 느껴지는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Ajzen(2002), 이정기, 우형진(2010)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지각된 행동 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ith regard to Privacy Invasion)	SNS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쉽게 수행하는 정도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쉽다.	Ajzen(2002)
		나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 (Intention to Privacy Invasion)	미래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의식적 계획 또는 결정의 강도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할 의향이 있다.	Ajzen(2002)
		나는 필요하다면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할 것이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려고 시도 할 것이다.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SNS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 때 인지하는 즐거움의 정도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즐겁다.	Van der Heijden (2004)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유쾌하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재미있다.	
		나는 SNS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흥미롭다.	
인지된 호기심 (Perceived Curiosity)	SNS에서 타인의 사진, 게시물과 같은 타인의 정보에 대한 호기심의 정도	나는 SNS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궁금하다.	Agarwal and Karahanna (2000)
		나는 SNS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더 알고 보고 싶다.	
		나는 SNS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더 검색 해 보고 싶다.	
		나는 SNS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더 알고 보고 싶다.	
처벌 (Punishment)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처벌의 엄격함 정도	내가 SNS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eace et al. (2003)
		내가 SNS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나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SNS에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SNS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적발될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할 것이라 생각한다.	
프라이버시 염려 (Privacy Concerns)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염려 정도	나는 SNS에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Dinev and Hart(2004)
		나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나는 SNS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을 수행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 수렴 타당성 검증, 판별 타당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을 수행하였다.

4.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28명(47.8%), 여자가 140명(52.2%)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40~49세가 81명(30.2%), 30~39세와 50~59세가 각각 69명씩(25.7%)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125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41명(15.3%), 자영 및 서비스업 35명(13.1%), 학생이 27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이 169명(6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58명(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8	47.8
	여자	140	52.2
나이(만)	29세 이하	33	12.3
	30~39세	69	25.7
	40~49세	81	30.2
	50~59세	69	25.7
	60세 이상	16	6
직업	회사원	125	46.6
	자영 및 서비스업	35	13.1
	학생	27	10.1
	주부	41	15.3
	공무원	13	4.9
	전문직	14	5.2
	기타	13	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	21.6
	대학 재학	23	8.6
	대학 졸업	169	63.1
	대학원 졸업 이상	18	6.7

V. 연구 모형의 검증

5.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5.1.1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 모형의 검정을 위한 구조방정식 경로 모형의 분석에 앞서 연구 모형의 각 변수(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요인 분석은 다수의 변수들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수의 요인들로 축약하기 위한 과정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 검증에 유용한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했다. 요인은 고유치가 1.0 이상 것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88.98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들의 설명력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672 이상이었다. 각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6 이상이고, 교차요인 적재량보다 동일변수의 측정항목의 적재량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Chi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타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했다. 신뢰성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ronbach's α 를 사용했다. 신뢰성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이 .90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8~.9 이상이면 신뢰성이 우수하고 .6~.7이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들의 신뢰성도 검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5.1.2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신뢰성 검증에 이어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했다. Hair *et al.*(2006)에 의하면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성을 먼저 검정했다. 수렴 타당성이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 간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수렴 타당성은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유의성(Critic Ratio),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 개념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하여 검정할 수 있다.

〈표 4〉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성 검정 결과

구 분		성분								Chronbach's α
		1	2	3	4	5	6	7	8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ATT3	.855	.144	-.206	-.237	.084	.159	.029	.035	.968
	ATT2	.852	.110	-.249	-.259	.052	.143	.044	.031	
	ATT5	.849	.111	-.178	-.292	.074	.230	.048	.032	
	ATT4	.848	.122	-.211	-.270	.093	.201	.059	.012	
	ATT1	.825	.085	-.288	-.238	.050	.146	.099	.045	
인지된 즐거움	ENJ2	.149	.874	-.048	-.031	.177	.202	.170	.187	.974
	ENJ3	.132	.870	-.058	-.031	.215	.219	.198	.190	
	ENJ4	.111	.856	-.059	-.029	.219	.232	.220	.206	
	ENJ1	.120	.854	-.015	-.024	.227	.191	.173	.192	
차별	PUN2	-.212	-.015	.899	.155	-.077	-.125	-.008	.012	.958
	PUN3	-.256	-.058	.872	.239	-.071	-.117	-.010	-.043	
	PUN1	-.243	-.078	.869	.223	-.053	-.104	-.022	.018	
	PUN4	-.239	-.021	.861	.230	-.087	-.111	-.050	-.100	
프라이버시 염려	PC2	-.274	-.025	.227	.880	-.041	-.066	-.069	.045	.957
	PC1	-.275	-.039	.212	.875	-.049	-.069	-.054	.014	
	PC4	-.291	-.005	.202	.862	-.016	-.081	-.106	-.007	
	PC3	-.264	-.039	.206	.850	-.024	-.101	-.061	.00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	PBC4	.100	.227	-.055	-.068	.865	.214	.166	.114	.950
	PBC2	.037	.177	-.089	-.010	.863	.135	.210	.237	
	PBC3	.014	.144	-.084	-.016	.844	.187	.206	.198	
	PBC1	.175	.297	-.079	-.051	.799	.190	.183	.171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INT3	.252	.273	-.141	-.117	.189	.829	.162	.127	.960
	INT2	.168	.146	-.205	-.058	.265	.826	.100	.140	
	INT4	.271	.313	-.112	-.130	.186	.790	.200	.116	
	INT1	.296	.314	-.122	-.117	.230	.761	.174	.14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	SN4	.039	.086	-.018	-.085	.112	.165	.896	.103	.909
	SN3	.104	.178	-.023	-.017	.201	.092	.876	.076	
	SN2	.002	.154	.020	-.097	.158	.073	.858	.025	
	SN1	.096	.348	-.096	-.078	.254	.150	.672	.145	
호기심	CUR2	.052	.219	-.053	.001	.214	.129	.118	.906	.960
	CUR1	-.007	.193	-.016	.050	.193	.106	.089	.900	
	CUR3	.059	.224	-.019	-.001	.197	.134	.088	.900	
고유치	12.513	5.851	2.269	2.017	1.701	1.543	1.340	1.242		
분산	39.102	18.283	7.091	6.302	5.317	4.821	4.189	3.882		
누적치	39.102	57.385	64.476	70.778	76.095	80.915	85.104	88.98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믹스.

본 연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을 계산한 결과 표준화 계수는 모두 .758~

.984로 나타났고, 유의성은 15.094~53.709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은 .513~.818로 나타났고, 개념 신뢰도는 .808~.94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표 5> 수렴 타당성 검정 결과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P	평균 분산추출	개념 신뢰도
PC1	1.017	.942	.038	26.761	***	.818	.947
PC2	1.066	.957	.038	27.902	***		
PC3	.909	.874	.041	22.167	***		
PC4	1.000	.906	-	-	-		
ENJ1	.916	.908	.029	31.519	***	.798	.940
ENJ2	.915	.934	.025	36.332	***		
ENJ3	.971	.981	.018	53.708	***		
ENJ4	1.000	.976	-	-	-		
CUR1	.878	.905	.032	27.436	***	.759	.904
CUR2	1.040	.984	.027	37.861	***		
CUR3	1.000	.944	-	-	-		
PBC1	1.000	.900	-	-	-	.637	.875
PBC2	1.102	.925	.046	24.185	***		
PBC3	1.065	.884	.049	21.637	***		
PBC4	1.061	.933	.042	25.492	***		
INT1	1.000	.935	-	-	-	.736	.918
INT2	.982	.867	.043	23.035	***		
INT3	1.038	.955	.033	31.761	***		
INT4	1.026	.952	.032	32.000	***		
PUN1	.946	.906	.038	24.705	***	.718	.910
PUN2	1.025	.910	.041	25.043	***		
PUN3	.976	.948	.032	30.267	***		
PUN4	1.000	.927	-	-	-		
ATT1	.951	.894	.036	26.235	***	.744	.936
ATT2	.984	.917	.034	28.546	***		
ATT3	.958	.922	.032	29.694	***		
ATT4	1.000	.948	-	-	-		
ATT5	1.011	.950	.030	34.117	***		
SN1	.832	.758	.055	15.094	***	.513	.808
SN2	.968	.830	.053	18.401	***		
SN3	1.044	.913	.049	21.382	***		
SN4	1.000	.890	-	-	-		

$\chi^2 = 901.130$, $df = 436$, $p = 0.000$, $\chi^2/df = 2.067$

SRMR = .0437, GFI = .827, AGFI = .791, NFI = .922, TLI = .952, CFI = .958, RMSEA = .063

〈표 6〉 상관관계와 판별 타당성 검정 결과

	ATT	PC	CUR	ENJ	INT	PBC	PUN	SN
ATT	.863							
PC	-.613	.904						
CUR	.158	-.033	.871					
ENJ	.332	-.144	.497	.893				
INT	.556	-.324	.396	.618	.858			
PBC	.272	-.155	.490	.556	.548	.798		
PUN	-.561	.527	-.132	-.193	-.381	-.231	.847	
SN	.218	-.189	.308	.482	.438	.487	-.128	.716

주) 대각 행렬에 있는 값들은 각 변수의 평균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들임.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 계수가 .7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하며, 유의성은 1.96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은 .5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 값은 .7 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Hair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수렴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의 경우 모든 요인들이 .70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의 적합도 검정 결과 $\chi^2 = 901.130$, $df = 436$, $p = 0.000$, $\chi^2/df = 2.067$, SRMR = .0437, GFI = .827, AGFI = .791, NFI = .922, TLI = .952, CFI = .958, RMSEA = .063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모델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판별 타당성을 검정했다. 판별 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잠재 변수들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Fornell and Larcker(1981)에 의하면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 값이 두 변인의 상관관계 제곱 값보다 크면 두 변인 간에는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값(the square root of AVE)이 상관 계수보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표 6>은 상관 계수와 AVE

제곱 값을 나타냈다. 대각 행렬에 있는 값들은 각 변수의 평균추출 분산의 제곱 값들이고, 대각 행렬 아래에 있는 값들이 상관 계수이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 계수 중 어떠한 수치도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값보다 높지 않다. 또한 상관관계수가 .5 이상인 것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공차 한계는 .1보다 큰 .631 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 또한 10보다 작은 최대 1.584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판별 타당성은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5.2 모델 적합도 검정

모델 적합도는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조사자가 수집한 공분산행렬과 조사자가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개발한 연구모델로부터 추정된 공분산행렬의 차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2). 현재까지 어느 적합도 지수가 가장 좋은가에 관한 합의된 결론은 없으며, 적합도 지수는 검정되는 특정모형, 요인 부하의 크기, 표본의 크기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수의 적합도 지수들이 모형 적합도 검정에 사용되고 있다. 연구모

<표 7>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부합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hi^2(df)$	χ^2/df	SRMR	GFI	AGFI	RMSEA	NFI	TLI	CFI
값	897.415(440)	2.040	.054	.830	.796	.062	.922	.953	.958
기준	$p > .05$	-	$p < .05$	$p > .90$	$p > .90$	$p < .05$	$p > .90$	$p > .90$	$p > .90$
판정	우수	-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우수	우수

델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적합지수를 나타내는 $\chi^2 = 897.415$, SRMR = .054, GFI = .830, AGFI = .796, RMSEA = .062로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수는 연구하고자 하는 관찰 변인 사이의 여러 구조모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지수이다. 증분적합지수를 나타내는 NFI = .922, TLI = .953, CFI = .958로 나타났다. 증분적합 지수는 관측 변수간 상관을 0으로 가정한 영모델(null model)보다 측정치가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모델 적합도는 χ^2 는 .05 이상, GFI, AGFI, NFI, CFI는 .9 이상, SRMR은 .05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RMSEA이 경우는 .05 이하면 적합, .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우종필, 2012).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증분적합지수 전체(NFI, TLI, CFI)와 χ^2 는 모델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RMR, GFI, AGFI, RMSEA는 우수하지는 않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들은 상대적 지수이고 표본의 크기와 측정 변인의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지수들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Hair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 중 일부는 우수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본 모형은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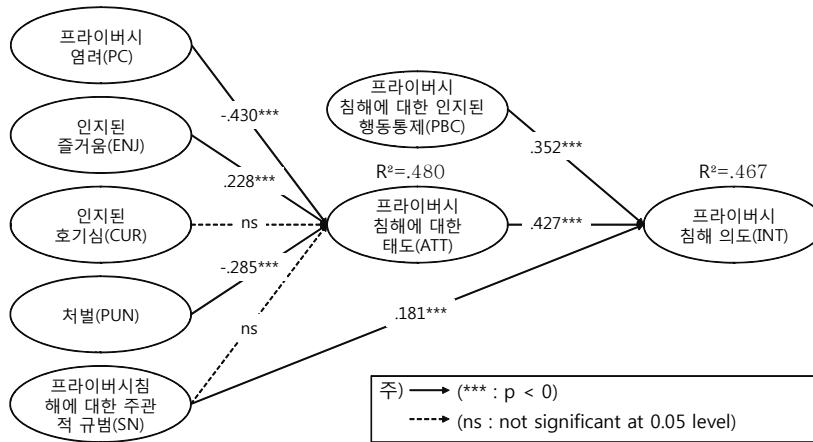
5.3 가설 검정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및 가설 검정 결과는 <표 8>과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 8>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분석 및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가설의 방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P	검정결과
H1	PBC → INT	+	.331	.352	.052	6.316	***	채택
H2	ATT → INT	+	.447	.427	.051	8.749	***	채택
H3	SN → INT	+	.176	.181	.053	3.295	***	채택
H4	PC → ATT	-	-.537	-.430	.072	-7.481	***	채택
H5	ENJ → ATT	+	.191	.228	.049	3.864	***	채택
H6	CUR → ATT	+	-.001	-.001	.043	-0.019	.985	기각
H7	PUN → ATT	-	-.262	-.285	.052	-5.049	***	채택
H8	SN → ATT	+	-.011	-.012	.051	-0.210	.833	기각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한 프라이버시 염려, 인지된 즐거움, 처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가설인 H1, H2, H3, H4, H5, H7은 채택되었다. 반면, 인지된 호기심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가설인 H6, H8은 기각되었다.

종속변수의 분산 중 어느 정도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인 R²값은 다음과 같다. 가설이 채택된 프라이버시 인식, 인지된 즐거움, 처벌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R²값은 .4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통제행동,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를 설명하는 R²값은 .467로 나타났다.

VI. 결론

6.1 연구 토의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요인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태도(.427), 인지된 행동통제(.352), 주관적 규범(.18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rmitage and Conner(2001)의 메타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됐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개인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가 감소하나 반대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적은 개인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가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로계수가 -.430으로 가설이 채택된 인지된 즐거움(.228)과

처벌(-.285)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내지는 지식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방향도 가설의 방향과 같이 (-)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동기요인 중 인지된 즐거움은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이 존재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인지된 호기심은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인지된 즐거움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은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면 특정 행위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Triandis, 1979). 따라서 개인은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흥미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잘못하다가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SNS 프라이버시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즐거움을 줄이고 이를 통해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적 동기요인 중 인지된 즐거움과 달리 인지된 호기심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유사한 개념인 인지된 즐거움 변수와 인지된 호기심 변수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호기심은 내적 동기의 모범적인 예라고 하는 Beswick (1974)의 연구 결과에 반하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호기심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SNS 매체의 정보 공유적인 특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하는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대인관계 호기심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에 따르면 SNS는 친교, 교제(85.6%), 취미, 여가 활동(66.9%), 개인적 관심사 공유(54.3%), 일상생활의 기록(45.2%) 등 타인에 대한 호기심 보다는 정보의 습득 및 공유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SNS의 목적이 호기심의 유발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둘째, SNS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이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 호기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외적 동기 요인 중 처벌은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최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확실성과 처벌의 심각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의 방향도 가설의 방향과 같이 (-)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처벌이 증가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위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동기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가설에 의하면 주관적 규범은 태도와 의도에 모두 영향을 준다(Chang, 1998; Heirman and Walrave, 2012)고 되어 있다. 특히 Ajzen(1991)의 초기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설정하지 않은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

가 아니라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Chang(1998)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부모, 학교 선생님, 동료 등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부모, 학교 선생님 등이 자신을 관대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윤리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다. 그 동안 윤리적 행위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 침해(Lin *et al.*, 1999; Peace, Galletta, and Thong, 2003) 및 불법복제(김중기, 2009)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프라이버시 연구의 범위를 이용자 및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로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는 크게 I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s)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Paradox 또는 프라이버시 Calculus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IT 이용자 및 피해자 편향에서 벗어나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 범위를 가해자로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기반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접목한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에 (-)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고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게 된다. 그러므로 SNS 기업 및 규제 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NS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법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벌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에 (-)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SNS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약관 및 공지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개인이 발견되는 경우 SNS 이용을 제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SNS 기업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즐거움을 제거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NS 기업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피해를 홍보하고 그 피해가 가해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즐거움이 감소하여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또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NS 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NS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SNS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 이상 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SNS 기업은 서비스 이용 중 개인의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메커니즘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과 같이 1년에 1, 2회와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개정 또는 관련 부처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SNS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을 웹사이트 이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프라이버시 관련 사고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의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횡단면 연구(Cross sectional research)를 진행하여 향후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SNS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와 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태도와 의도만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및 외적 동기, 프라이버시 침해 태도,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를 넘어 실제 침해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문만으로는 응답자의 사회적 동의 편향을 배제한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SNS 상의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실제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김광용,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1권, 제4호, 2004, pp. 48-66.
- 김중기, “대학생들의 S/W 불법복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2009, pp. 127-140.
- 박주연,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태도와 침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 교육의 조절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제43권, 제3호, 2012, pp. 61-78.
- 송갑호, 심민우, 김광용,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비윤리적 컨설팅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pp. 71-108.
- 안중호, 박준형, 성기문, 이재홍,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미치는 영향: 조직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2권, 제1호, 2010, pp. 23-42.
- 이정기, 우형진,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7권, 제1호, 2010, pp. 215-253.
- 오태원, 유지연,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공용, 한나래아카데미, 서울, 2012.
- 최숙기,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 국어교육과 매체 언어 이해 교육”, 청람어문교육, 제42권, 2010, pp. 69-106.
- 한국신용평가, “신용카드 3개사 영업정지 결정과 관련한 당사 견해”, 보도자료, 2014. 2. 4.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한국인터넷백서,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2011.
- Agarwal, R. and E. Karahanna,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1", *MIS Quarterly*, Vol.24, No.4, 2000, pp. 665-694.
- Ajzen, I.,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1989, pp. 241-274.
- Ajzen, I.,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2002.
- Ajzen, I.,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0.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1991, pp. 179-211.
- Armitage, C. J. and M. Conner,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0, No.4, 2001, pp. 471-499.
- Beswick, D. G., "Intrinsic motivation in se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 Research and Perspectives*, Vol.1, No.2, 1974, pp. 15-25.
- Beveren, J. V., "A Conceptual model of hacker development and motivations", *Journal of E-Business*, Vol.1, No.2, 2001, pp. 1-9.
- Chang, C. C., K. H. Tseng, C. Liang, and C. F. Yan, "The influence of perceived convenience and curiosity on continuance intention in mobile English lear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using PDAs", *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 Vol.22, No.3, 2013, pp. 373-386.
- Chang, M. K., "Predicting unethical behavior: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7, No.16, 1998, pp. 1825-1834.
- Childers, T. L., C. L. Carr, J. Peck, and S. Carson, "Hedonic and utilitarian motivations for online retail shopping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77, No.4, 2001, pp. 511-535.
- Chin, W. W., B. L. Marcolin, and P. R. Newsted, "A Partial Least Squares Latent Variable Modeling Approach for Measuring Interaction Effects: Results from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and an Electronic-Mail Emotion/Adoption Stud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4, No.2, 2003, pp. 189-217.
- Davis, F. D., R. P. Bagozzi, and P. R. Warshaw,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to use computers in the workplace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2, No.14, 1992, pp. 1111-1132.
- Debatin, B., "Ethics, privacy, and self-restraint in social networking", *Privacy Online*, 2011, pp. 47-60.
- Deci, E. L.,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8, No.1, 1971, pp. 105-115.
- Deci, E. L., *Intrinsic motivation*, Plenum Press, 1975.
- Dinev, T. and P. Hart, "Internet privacy concerns and their antecedents - measurement validity and a regression model",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23, No.6, 2004, pp. 413-422.
- Dinev, T. and P. Hart,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7, No.1, 2006, pp. 61-80.
- Fornell, C.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 39-50.
- Gartner, *Market Share Analysis: Mobile Phones, Worldwide*, 1Q, 2013(available online at <http://www.gartner.com/newsroom/id/2482816>).
- Gordon, L., M. Loeb, and T. Sohail, "Market value

- of voluntary disclosures concerning information security”, *MIS Quarterly*, Vol.34, No.3, 2010, pp. 567-594.
- Gross, R. and A. Acquisti, “Information revelation and privacy in online social networks”, *Processings of the 2005 ACM workshop on Privacy in the electronic society*, 2005.
- Gupta, S. and H. Xu, “Examin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Risk and Control on Intention to Adopt Risky Technologies”,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Innovation*, Vol.5, No.4, 2010, pp. 22-37.
- Hair, J. F., B. Black, B.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Pearson Prentice Hall, 2006.
- Heirman, W. and M. Walrave, “Predicting adolescent perpetration in cyberbullying: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icothema*, Vol.24, No.4, 2012, pp. 614-620.
- Hsu, C. L. and J. C. C. Lin, “Acceptance of blog usage: the roles of technology acceptance, social influence, and knowledge sharing motivation”,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45, No.1, 2008, pp. 65-74.
- Johnston, A. C. and M. Warkentin, “Fear appeals and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s: an empirical study”, *MIS Quarterly*, Vol.34, No.3, 2010, pp. 549-566.
- Johnson, D. G., “Computer ethics”, *The Philosophy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No.65, 1985.
- Koo, D. M. and S. H. Ju,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atmospherics and perceptual curiosity on emotions and online shopping int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2010, pp. 377-388.
- KPCB, 2012 Internet Trends, 2012.(available online at <http://www.kpcb.com/insights/2012-internet-trends>).
- Kwon, O. and Y. Wen,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No.2, 2010, pp. 254-263.
- Lawler, J. P. and J. C. Molluzzo, “A study of the Perceptions of Students on Privacy and Security on Social Networking Sites(SNS) on the Internet”,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Applied Research*, Vol.3, No.12, 2010, pp. 3-18.
- Leonard, L. N. K., T. P. Cronan, and J. Kreie, “What influences IT ethical behavior intentions-planned behavior, reasoned action, perceived importance,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42, No.1, 2004, pp. 143-158.
- Lewis, K., J. Kaufman, and N. Christakis, “The Taste for Privacy: An Analysis of Colledge Student Privacy Settings in an Online Social Networ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4, No.1, 2008, pp. 79-100.
- Lin, T. C., M. H. Hs, F. Y. Kuo, and P. C. Sun, *An intention model-based study of software piracy*, System Sciences, HICSS-32, Proceedings of the 32nd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1999.
- Lindenberg, S., “Intrinsic motivation in a new light”, *Kyklos*, Vol.54, No.2, 2001, pp. 317-342.
- Litman, J. A., “Interest and deprivation factors of epistemic curios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4, No.7, 2008, pp. 1585-1595.
- Litman, J. A., P. C. Robert, and C. D. Spielberger,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sensory curios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9, 2005, pp. 1123-1133.
- Malhotra, N. K., S. S. Kim, and J. Agarwal,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5, No.4, 2004, pp. 336-355.
- Motahari, S., C. Manikopoulos, R. Hiltz, and Q. Jones, *Seven privacy worries in ubiquitous so-*

- cial computing*,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Series, 2007.
- Peace, A. G., D. F. Galletta, and J. Y. L. Thong,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0, No.1, 2003, pp. 153-178.
- Randall, D. M. and M. G. Annetta, "Ethical decision making in the medical profess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0, No.2, 1991, pp. 111-122.
- Ryan, R. M. and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2000, pp. 54-67.
- Son, J. Y. and S. S. Kim,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protective responses: A taxonomy and a nomological model", *MIS Quarterly*, Vol.32, No.3, 2008, pp. 503-529.
- Straub, D. W., "Effective IS security: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 No.3, 1990, pp. 255-276.
- Titah, R. and H. Barki, "Nonlinearities between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in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 negative synergy?", *MIS Quarterly*, Vol.33, No.4, 2009, pp. 827-844.
- Triandis, H. C.,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9.
- Turel, O., A. Serenko, and N. Bontis, "User acceptance of hedonic digital artifacts: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perspective", *Informa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47, 2010, pp. 53-59.
- Van der Heijden, H., "User acceptance of hedonic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2004, pp. 695-704.
- Wang, Y., G. Norcie, and L. F. Cranor, "Who Is Concerned about What? A Study of American, Chinese and Indian Users' Privacy Concerns on Social Network Sites, Trust and trustworkthy computin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1, pp. 146-153.
- Yoon,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thics theory in digital piracy: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00, No.3, 2011, pp. 405-417.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Invade Privacy on Social Network Service

Soomi Ahn* · Jaeyoung Jang** · Jidong Kim*** · Beomsoo Kim****

Abstract

With side effects such as Phishing and Spam using personal information in Social Network Servic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tudies related to harmful behaviors such as the reason for privacy violation. As such, this study assumed privacy violation to be ethical decision, making behavior and use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Motivation Theory, which are mostly used in social scienc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rivacy viol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erceived Enjoyment and Punishment used in motivation studies affected privacy violation behaviors, and that the factor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ch as Attitude toward Privacy Violation, Subjective Norms of Privacy Viol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ith regard to Privacy Viol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Privacy Violation. On the other hand, Perceived Curiosity and Subjective Norms of Privacy Violation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Privacy Viol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ppropriate to explain the Intention to Privacy Violation, and that the variables of the Motivation Theory generally influenced the Attitude toward Privacy Violation. This study was significant since it extended the scope of theoretical privacy study from users and victims centered to inflictor and applied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using the variables of the Motivation Theory in the study of Intention to Privacy Violation. From the practical aspect, it provided the ground for privacy educa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Attitude toward Privacy Violation can be curbed when education on the Privacy Concerns, Perceived Enjoyment, and Punishment with regard to privacy is strengthened. It also cited the need for the punishment of privacy violation and the practical ground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r licen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provide policy support.

Keywords: *Social Network Services, Privacy,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tivation Theory*

* White Information Networking Corp.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저 자 소개 ◎



안 수 미 (iiistarii@gmail.co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화이트 정보통신(주) R&D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프라이버시, IT전략, 디지털 비즈니스 등이다.



장 재 영 (jyjang31@gmail.com)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서 정보통신 정책과 규제를 전공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프라이버시 보호, 위치정보 보호, 스팸 대응 정책 및 기술, 디지털비즈니스 전략이다.



김 지 동 (siamseye@nate.com)

현재 연세대학교 지식서비스보안 석사 과정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개인정보 보호, 금융정보보호, IT 서비스 등이다.



김 범 수 (beomsookim@gmail.com)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보시스템감사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회장과 경영정보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글과컴퓨터의 감사를 역임했다. 연구 관심분야는 프라이버시 법률과 정책,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모범 사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리, 기업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IT 산업에서의 경제적인 이슈이다.

논문접수일 : 2014년 01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16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4일

2차 수정일 : 2014년 05월 11일